

## 다리미와 인두에 관한 소고

서울여자대학교 박사과정  
李 恩 卿

| 目 次   |   |
|---|---|
| I. 머릿말<br><br>II. 1. 다리미의 定義와 形態<br>2. 다리미의 歷史<br>1) 三國時代와 伽倻時代의 다리미<br>2) 高麗時代의 다리미<br>3) 朝鮮時代의 다리미<br>4) 日帝時代의 다리미<br>3. 다리미의 使用風俗<br>4. 다리미 받침 | III. 1. 인두의 定義와 形態<br>2. 인두의 變遷<br>1) 코끝이 뾰족하게 올라간 인두<br>2) 方形 인두<br>3) 流線形 인두<br>3. 인두판<br><br>IV. 結 言<br>參考文獻 |

## I. 머릿말

바느질이란 옷을 마름질하여 옷을 꿰매는 행위, 또는 짓는 행위를 말하며 造形의 意味를 갖는다.

在來로 부터 바느질이란 여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좋은 바느질 솜씨는 여인에게 있어서의 커다란 凡節이었다. 그러므로 바느질에 사용되는 道具는 정성스럽고 귀중하게 다루어졌다.

바느질 道具에는 바늘·자·실패·골무·반질고리·다리미·인두·인두판·화로 등이 있다.

바느질 道具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홍성덕의 '우리나라 바느질 도구 소고'와 박정식의 '우리나라 바늘질 용구 소고'가 있는데, 이는 바느질 도구 전반을 다룬 것이고, 따로 깊이 연구한 것은 本人의 '朝鮮王朝의 布帛尺에 관한 연구'로 바느질자에 관한 것이 있을 뿐, 다리미와 인두에 관한 것은 없어 연구하고자 한다.

주된 研究內容은 다리미와 인두의 形態, 歷史 및 使用風俗에 관한 것으로서, 研究範圍는 三國時代 부터 日帝時代까지이다.

제한점으로 다리미는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의 遺物이 풍부하지 못해 時代마다의 變化를 찾을 수 없었다. 朝鮮時代에는 遺物은 많았으나 使用者가 확실치 않았고, 遺物과 대조해 볼 文獻이 전혀 없어 다리미의 形態로서 時代區分을 하였다. 한편 인두는 朝鮮時代이전의 遺物과 文獻이 없어 朝鮮時代의 遺物만 갖고 形態별로 研究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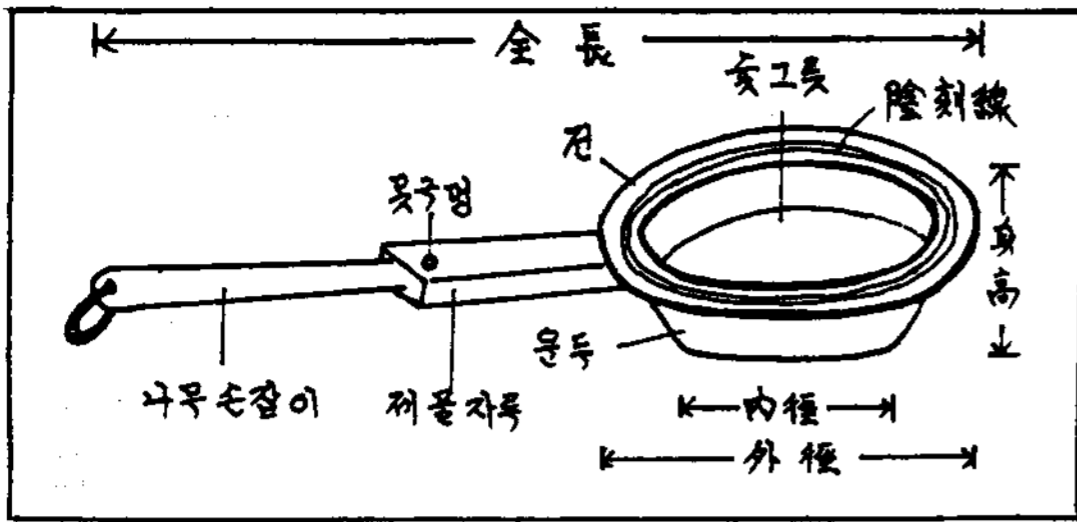
研究對象은 주로 各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實物에 의존하였으며 圖錄과 文獻을 參照하였다.

## II. 1. 다리미의 定義와 形態

다리미는 옷이나 피륙의 구김살을 펴는데 사용되는 기구로 漢字語로는 울두(熨斗) 또는 화두(火斗)라 하는데, 通俗文에는 火斗曰熨斗"라고 했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鉗塔, 俗名으로 '다리우리'라 하여 불붙은 숯을 넣고 옷감을 펴는 것(熨炭伸衣帛)이라 했다."

그 形態는(圖1)

1) 古事成語辭典(서울:學園社 1961), p. 1189, 재인용 "다리미는 옷이나 피륙의~ 옷감을 펴는것(熨炭伸衣帛)이라 했다."



〈圖1〉다리미의 形態(朝鮮時代의 靑銅製다리미)

쇠붙이로 된 연엽(蓮葉)대접형으로 전이 있고 운두가 안쪽으로 경사져서 숯불이 안전하게 담길 수 있게 되어 있고, 바닥은 옷감의 구김이 잘퍼지도록 매끄러운 평면으로 되어 있다.<sup>2)</sup>

숯그릇에는 재물자루가 달려있고, 그 끝에는 다리미질하기에 편리하도록 열전도가 낮은 나무손잡이가 달려있다.

## 2. 다리미의 歷史

다리미는 「회남자(淮南子)」(漢나라 淮南王 劉安이 지은 冊)에 보면, 불에 달군 쇠기둥을 맨발로 건너 가게한 규형 곧 炮烙에서 비롯 되었다고 한다.<sup>3)</sup>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中國 漢大의 靑銅製 다리미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이 漢代의 다리미는 앞은 전에 긴 손잡이(柄 또는 斗)가 달린 것이다.



〈圖2〉唐風俗圖의 一部  
(「仕女畫」대만: 古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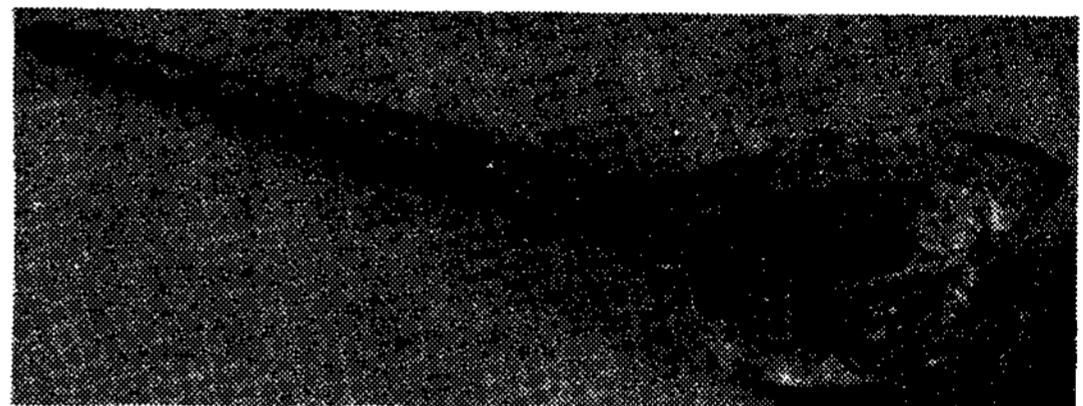
(圖2)는 中國 唐代 女人들의 다리미질하는 모습인데 漢代의 다리미가 唐代까지 별다른 變化없이 전해져 왔다고 보이며 형태는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다리미와 같다.

우리나라는 三國時代 이전의 다리미에 관한 文獻이나 遺物은 現在 없다. 다리미 使用年代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일찍부터 使用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現在로서 發見된 제일 오래 된 遺物은 百濟 무령왕비가 使用하던 靑銅製 다리미가 있고 그밖에 本人이 조사 실측한 다리미로는 新羅時代 1점, 伽倻時代 3점, 高麗時代 2점, 朝鮮時代 40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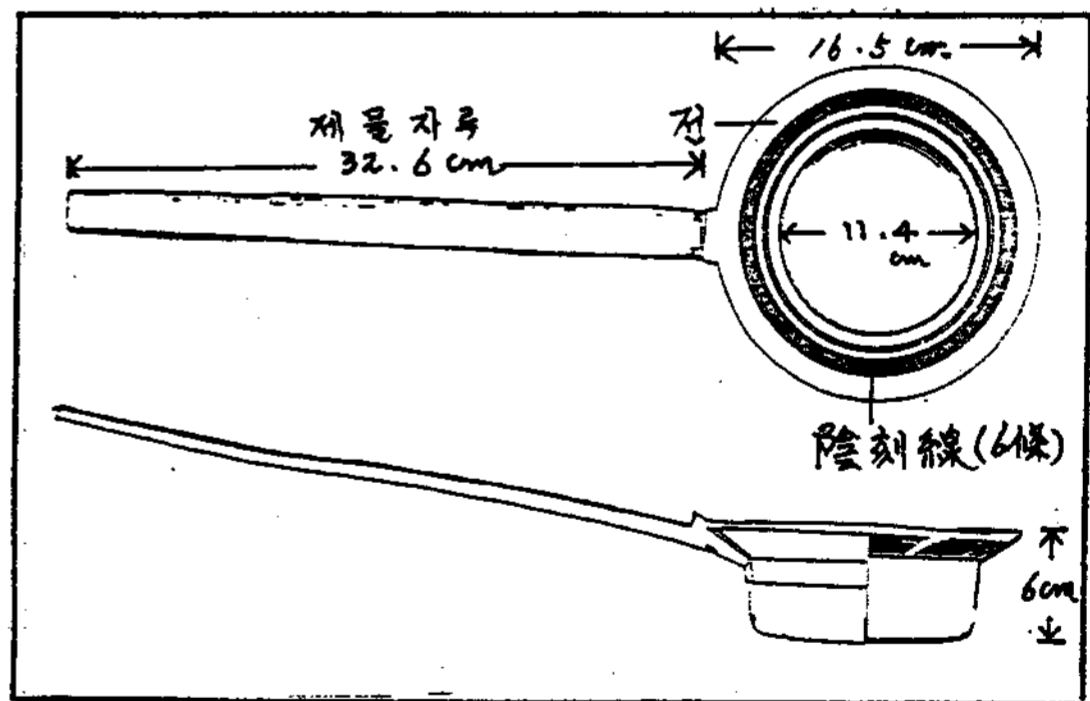
### 1) 三國時代와 伽倻時代의 다리미

#### ① 百濟 무령왕릉 出土 다리미

百濟 무령왕릉에서 出土 된 靑銅製 다리미(圖3)는 가장 오래 된 遺物이다. 이것은 무령왕비가 使用하던 것으로 그 形態는(圖4)



〈圖3〉百濟무령왕릉 出土 靑銅製 다리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圖4〉靑銅製다리미 實測圖  
(韓國의 美<sup>22</sup> 서울: 을유문화사)

蓮葉 대접형으로 넓고 얇은 세수대야와 비슷하다. 전은 안쪽으로 경사지고 여기에 6條의 陰刻線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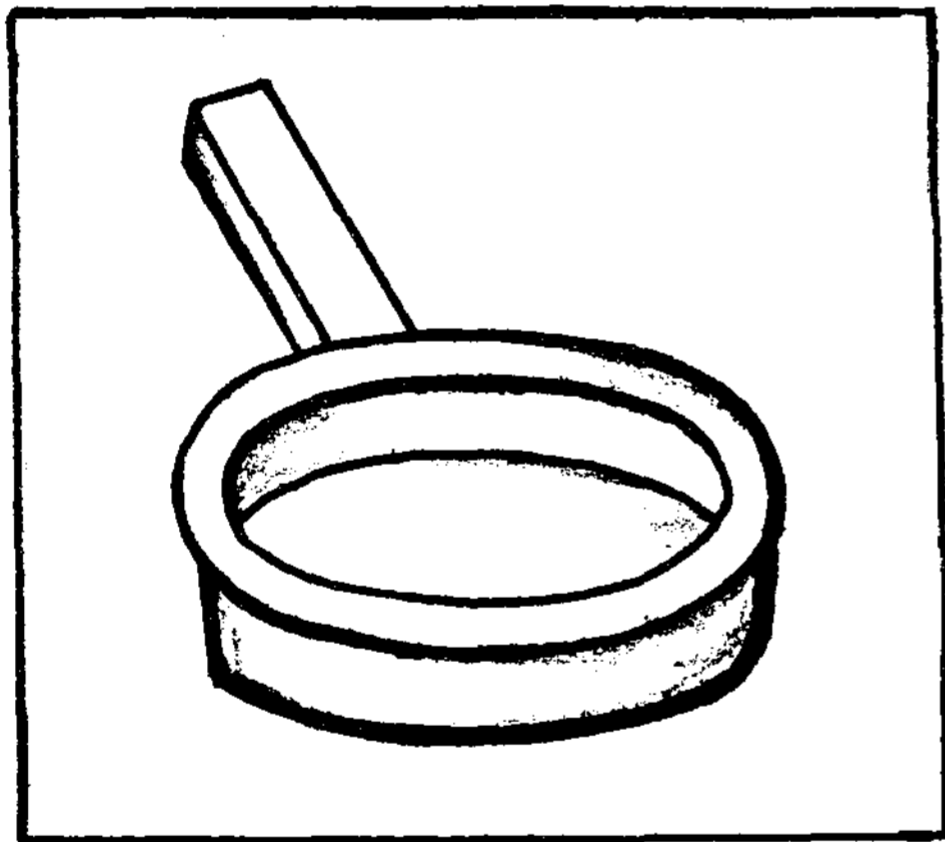
2)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六冊(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3)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研究(서울: 一志社, 1988), p. 91, 재인용 "회남자(淮南子)에 보면 ~ 비롯되었다고 한다."

둘러져 있으며 外面은 턱이 저서 半以上을 약간 두껍게 만들었다. 제물자루는 上面이 扁平하고, 下面은 둥글어 斷面이 半月形인데 接續部 表面은 전의 外緣에 붙었고, 裏面은 한층 넓어져 전의 外部에 接續되었다. 흔히 볼 수 있는 通式 다리미이지만 제물자루가 긴 편이다. 그리고 外部바닥에는 고운 흰 苧布조각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收藏하기 전 섬유질로 감쌌던 것 같다.<sup>4)</sup> 자세한 치수는 全長 49cm, 身高 6cm, 外徑 16.5cm, 內徑 11.4cm, 제물자루長 32.6cm이다.<sup>5)</sup> 이 다리미는 朝鮮時代의 다리미와 유사한 모양새인데 靑銅製자루 끝에 나무손잡이가 없는 점이 다르다. 이것은 열전도가 높은 靑銅製자루로는 다림질이 불가능한 만큼 본래는 나무손잡이가 있었으나 부패된 것으로 보인다.<sup>6)</sup>

② 天馬塚 出土 다리미

다리미는 新羅의 古墳인 天馬塚 星吾里 古墳에서도 靑銅製의 遺物이 出土되었다.(圖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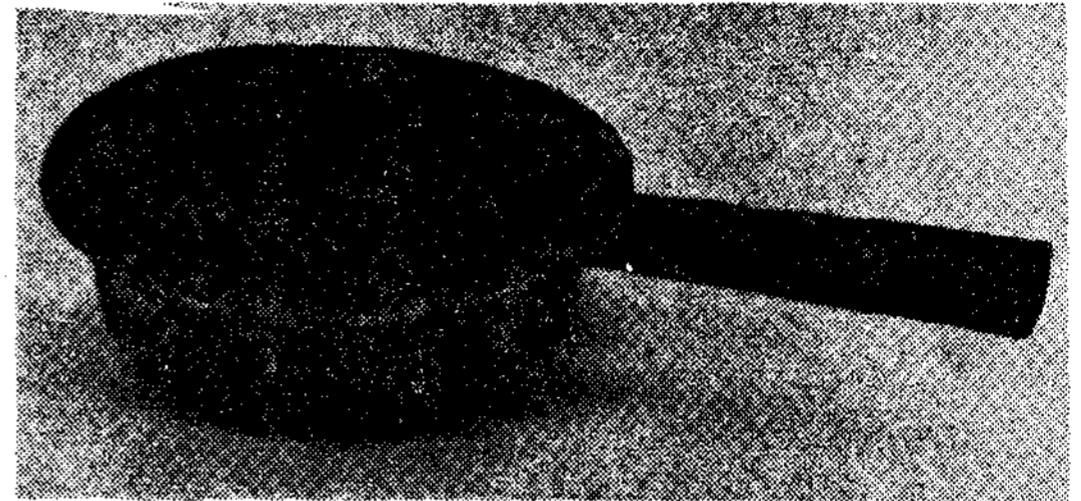
〈圖5〉天馬塚 出土 다리미  
(金基雄「新羅의 古墳」, 學生社)

形態는 납작한 圓筒形의 몸체에 전이 좁고 경사가 완만하다. 제물자루는 斷面이 사각형으로 괴통이 뚫려있어 나무손잡이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다. 全長 26cm, 外徑 15.5cm, 身高 4cm이다.

③ 伽倻, 昌寧, 校同 7호분 出土 다리미

昌寧, 校同 7호분 出土 靑銅製다리미는(圖6)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경의 遺物로 추측되며, 形態는 납작한 圓筒形의 몸체로 전에서 직각으로

꺾이었는데 전은 좁고 경사가 완만하다. 제물자루는 몸체에서 接續되어 斷面이 사다리꼴을 이루고 괴통이 뚫려 있으며, 끝부분 上面에 0.3cm의 못구멍이 있다. 여기에 나무자루를 끼워서 使用한 것 같다. 치수는 全長 19.3cm, 身高 3.6cm, 外徑 10.0cm이다.



〈圖6〉昌寧, 校同 7호분 出土 靑銅製다리미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이 昌寧, 校同 7호분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靑銅製 다리미가 出土되었는데 形態는 (圖6)의 다리미와 같으나, 크기가 약간 큰편으로 全長 20.5cm, 身高 4.0cm, 外徑 10.5cm이다.



〈圖7〉伽倻의 회색경질토기 다리미  
(국립 진주 박물관 소장)

(圖7)은 회색의 경질토기로 된 伽倻의 다리미로 출토지는 未詳이다.

土製다리미로서는 이 한점이 유일한 예가 되고 있다. 형태는 昌寧 古墳 出土의 다리미(圖6)와 비슷하다. 전은 좁고 外緣이 도톰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부러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 같다. 다리미 밑면은 둥그스럼하며, 손잡이는 원래 좀더 길었으나 부러져 현 상태가 된 듯하다. 다리미 속에는 실제 사용된 흔적으로 흑검정이 묻어 있다. 치수는 全長 29.6cm, 身高 4.0cm, 外徑 10.2cm로 작은 편이다.<sup>7)</sup>

4) 韓國의 美 22 古墳美術(서울: 乙酉文化社, 1985)

5) 金基雄, 「百濟의 古墳」, (東京: 學生社, 1976), p. 141

6) 孫晉泰, 「韓國民族史概論」(서울: 乙酉文化社, 1948), p. 266

이상과 같이 百濟遺物 1점, 新羅遺物 1점, 伽倻遺物 3점 등 5점을 고찰한 결과, 4점은 靑銅製다리미였고, 1점은 회색경질토기로 되어 있었다. 형태는 크게 두종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百濟의 다리미는 蓮葉 대접형으로 전이 넓고 안쪽으로 경사졌으며 陰刻線이 둘러져 있었다. 제물자루는 전의 外緣에 接續되어있고 斷面이 半月形으로 길이가 길었는데

제물자루 위에 나무손잡이를 씌우게 되어 있었다. 新羅와 伽倻의 다리미는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 납작한 圓筒形의 몸체에 전은 좁고 경사가 완만하다. 제물자루는 몸체에 接續되어 있는데 사다리꼴의 斷面에 괴통이 뚫려있고 끝부분에 못구멍이 있어 나무손잡이를 끼워 使用한 듯하다(表1참조).

〈表 1〉 百濟와 新羅·伽倻의 다리미 비교

|   |   | 百濟의 다리미        | 新羅·伽倻의 다리미     |
|---|---|----------------|----------------|
| 형 | 태 | 연엽대접형          | 납작한 원통형        |
| 재 | 료 | 청동제            | 청동제, 회색경질토기    |
| 전 | 의 | 넓다 (5.0cm)     | 좁다 (2.0cm)     |
| 전 | 의 | 크다             | 적다             |
| 제 | 물 | 半月形            | 사다리꼴의 괴통       |
| 제 | 물 | 길다 (32.6cm)    | 짧다 (10.5cm)    |
| 제 | 물 | 전의 外緣에 접속      | 몸체에 접속         |
| 손 | 잡 | 제물자루 위에 씌워서 사용 | 제물자루 속에 끼워서 사용 |
| 특 | 징 | 전에 6條의 陰刻線     | 제물자루 끝부분에 못구멍  |

2) 高麗時代의 다리미

高麗時代 遺物은 2점이 있었는데, 形態는 비슷했으나 材料는 靑銅製와 白銅製로 달랐다. 이들 다리미는 형태가 新羅·伽倻의 다리미와 類似하여 三國時代에서 高麗時代에 이르는 동안 다리미 형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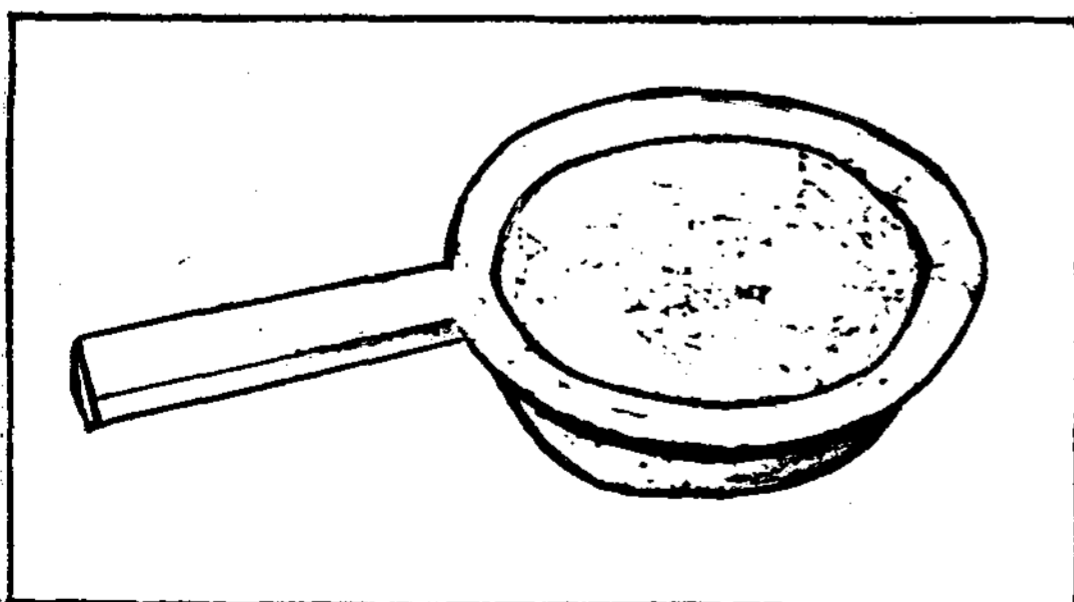
(圖8)은 靑銅製의 高麗時代다리미로서 全長 21cm, 外徑 13cm, 身高 4cm, 전의 너비는 1.5cm로 전이 안쪽으로 경사졌다. 제물자루는 단면이 사각형인데 괴통이 뚫려있어 손잡이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다.

淑大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白銅製다리미는 全長 31cm, 外徑 18cm, 身高 5.5cm로 크기는 (圖8)의 靑銅製다리미보다 큰 편이나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

3) 朝鮮時代의 다리미

朝鮮時代 遺物은 국립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대학박물관, 제주자연사박물관, 한국민예관, 개인소장품 등을 포함 총 40점이 소장되어 있다 (表2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遺物들이 使用者가 확실치 않고, 遺物과 대조해 볼 기록이 없어 형태의 특징만 갖고는 精確한 時代的 區分을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遺物중 특징적인 것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



〈圖8〉高麗時代의 靑銅製 다리미 (경희대 박물관 소장)

7) 國立晉州博物館(서울:通川文化社, 1984), p.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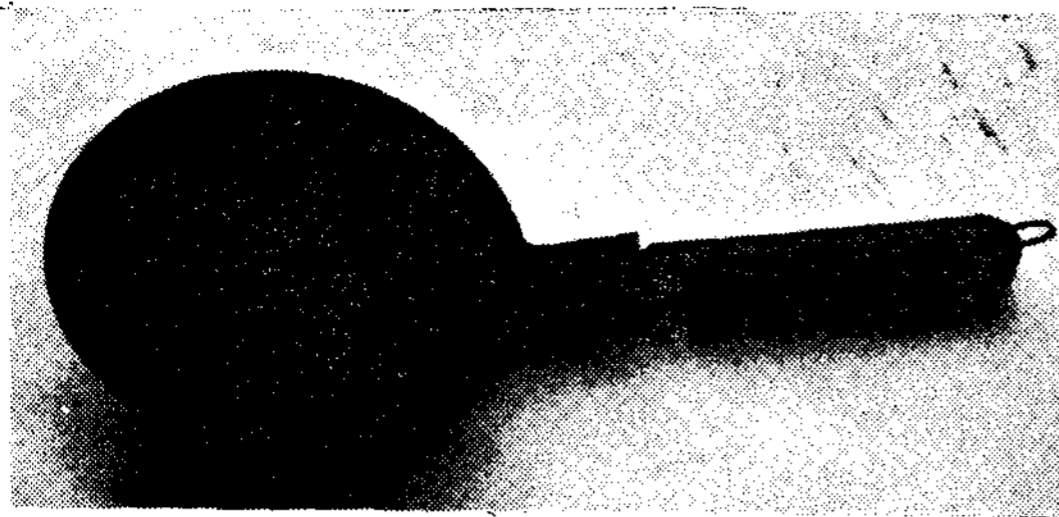
〈表 2〉

## 다리미 (42점)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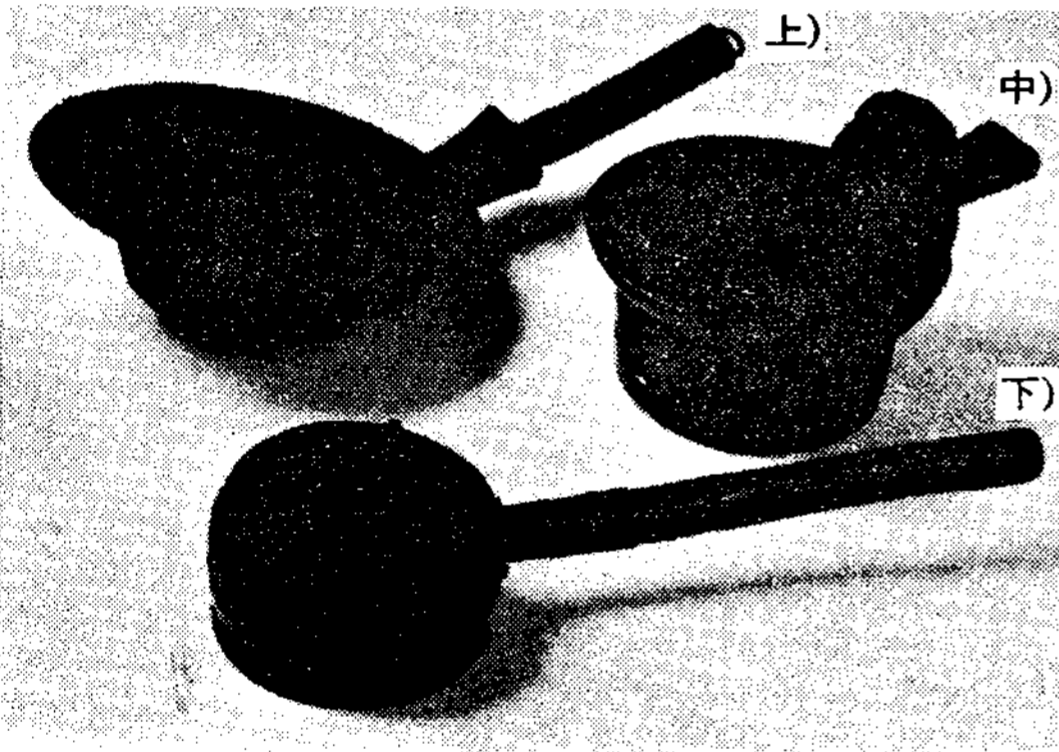
|    | 所 藏        | 全長   | 外徑   | 材料 | 時代     | 特 徵                |
|----|------------|------|------|----|--------|--------------------|
| 1  | 국립민속박물관    | 46   | 22.5 | 무쇠 | 조선중기   | 연엽대접형              |
| 2  | 온양민속박물관    | 37.5 | 21   | 무쇠 | "      | 제물자루 짧고, 단면 사다리꼴   |
| 3  | "          | 27   | 17   | 靑銅 | "      | 반월형장식              |
| 4  | "          | 35.2 | 11   | "  | 조선말기   | 전이 없음. 內部두겹바닥      |
| 5  | "          | 35   | 11   | "  | "      | 12條의 방사선문          |
| 6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33.5 | 18   | 무쇠 | 일 제    | 접시형. 內部에 6條의 방사선문  |
| 7  | 고려대박물관     | 42   | 17   | "  | 조선말기   |                    |
| 8  | "          | 42   | 17   | "  | "      |                    |
| 9  | "          | 43   | 18   | 靑銅 | "      |                    |
| 10 | "          | 27   | 18.5 | "  | "      |                    |
| 11 | "          | 41   | 19   | "  | "      |                    |
| 12 | "          | 45   | 18   | "  | "      |                    |
| 13 | "          | 43   | 18.5 | "  | "      |                    |
| 14 | "          | 37   | 17   | "  | "      |                    |
| 15 | "          | 37   | 18.5 | "  | "      |                    |
| 16 | 관동대박물관     | 33.2 | 17.2 | "  | "      | 身高 4.7 內徑 12.5     |
| 17 | "          | 39.5 | 20   | "  | "      | 身高 5.5 內徑 11.5     |
| 18 | "          | 18   | 12   | "  | "      | 제물자루 없음            |
| 19 | "          | 37   | 17   | "  | "      |                    |
| 20 | "          | 43   | 18   | "  | "      |                    |
| 21 | 경희대박물관     | 21   | 13   | 靑銅 | 고 려    |                    |
| 22 | "          | 44   | 19   | 무쇠 | 조선말기   |                    |
| 23 | 덕성여대박물관    | 40   | 18.7 | "  | "      |                    |
| 24 | "          | 37   | 17.9 | 靑銅 | "      |                    |
| 25 | "          | 40   | 18   | "  | "      |                    |
| 26 | "          | 57.3 | 16.5 | "  | "      |                    |
| 27 | "          | 43.8 | 16.5 | "  | "      |                    |
| 28 | "          | 45.5 | 17   | "  | "      |                    |
| 29 | "          | 45.5 | 18   | 무쇠 | "      |                    |
| 30 | "          | 33.5 | 16.7 | "  | "      |                    |
| 31 | 성신여대박물관    | 38   | 17   | "  | 일 제    | 접시형                |
| 32 | "          | 36.5 | 18.7 | "  | "      |                    |
| 33 | 숙명여대박물관    | 31   | 18   | 白銅 | 고 려    | 자루없음               |
| 34 | "          | 31   | 14.6 | 靑銅 | 조선말기   |                    |
| 35 | "          | 35   | 18.5 | "  | 1910년경 |                    |
| 36 | "          | 42.5 | 22.8 | "  | "      |                    |
| 37 | 한국민예관      | 42   | 15   | 무쇠 | 조선말기   | 전이 오무러진 원통형        |
| 38 | "          | 73   | 18   | 무쇠 | "      | 다리미 앞부분에 반월형 공기구멍. |
| 39 | 芮庸海氏 소장    | 17.5 | 11.7 | 돌  | "      | 자루없음.              |
| 40 | H氏 소장      | 47   | 16.8 | 靑銅 | "      |                    |
| 41 | "          | 46.6 | 17.7 | "  | "      |                    |
| 42 | "          | 47.5 | 17.8 | "  | "      |                    |





〈圖9〉青銅製다리미(국립민속박물관 소장)

(圖9)는 全長 46cm, 外徑 22.5cm, 身高 5.5cm의 青銅製 다리미로 전이 넓고 운두가 경사졌다. 제물자루의 斷面은 사다리꼴이며 둥근 나무손잡이가 끼워져 있고 손잡이 끝에는 사용 후 걸어들 수 있도록 쇠고리가 달려 있다.



〈圖10〉朝鮮時代의 다리미(온양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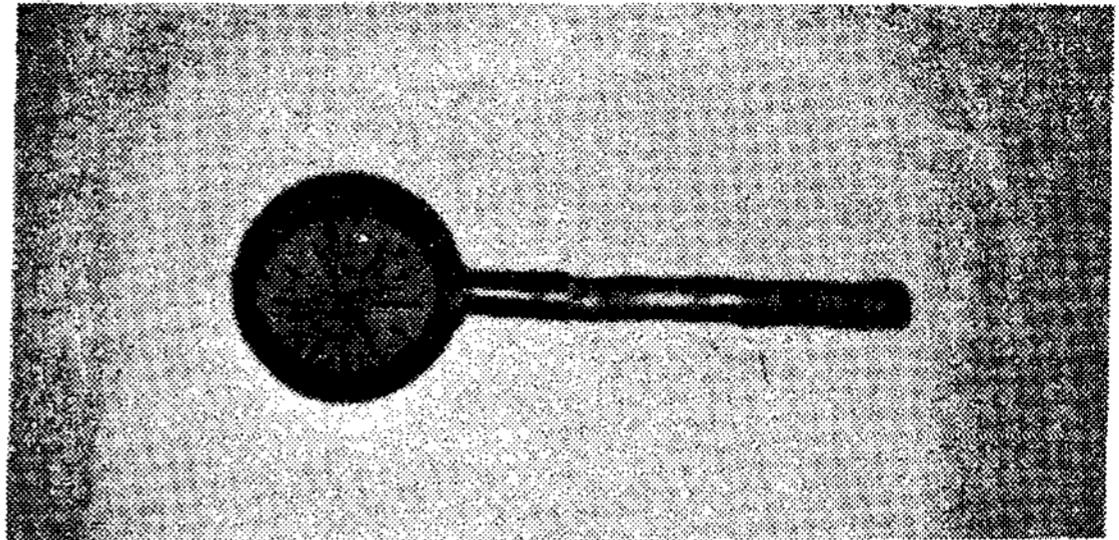
(圖10)은 朝鮮時代 다리미의 대표적인 세가지 형태이다.

上)은 全長 37.5cm, 外徑 21cm, 內徑 11cm, 身高 6cm의 무쇠다리미이다. 전이 넓으며 안쪽으로 경사졌고, 운두도 비스듬히 경사졌다. 형태는 百濟의 다리미와 유사하나 제물자루가 4cm로 짧아졌고 대신 나무손잡이가 길다. 朝鮮時代 다리미의 여러 형태 중, 前時代의 다리미와 가장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初期의 것으로 짐작된다.

中)은 全長 27cm, 外徑 17cm, 身高 5.6cm인 青銅製 다리미로 전이 안쪽으로 오그라쳐 있고 운두는 圓筒形이다. 특징은 전과 제물자루의 연결부분에 半月形의 장식이 붙어 있으며, 제물자루의 斷面이 半月形이다.

下)는 全長 35.2cm, 外徑 11cm로 된 전이 없는 다리미이며, 운두가 둥그스럼하다. 다리미 內部의

底面에는 中央을 향해 12方으로 뻗어나간 放射形의 線紋이 있으며 받침이 하나 더 들어 있어 바닥이 두겹이다.(圖11) 나무 손잡이에는 자귀자국을 낸 후, 기름을 올려 소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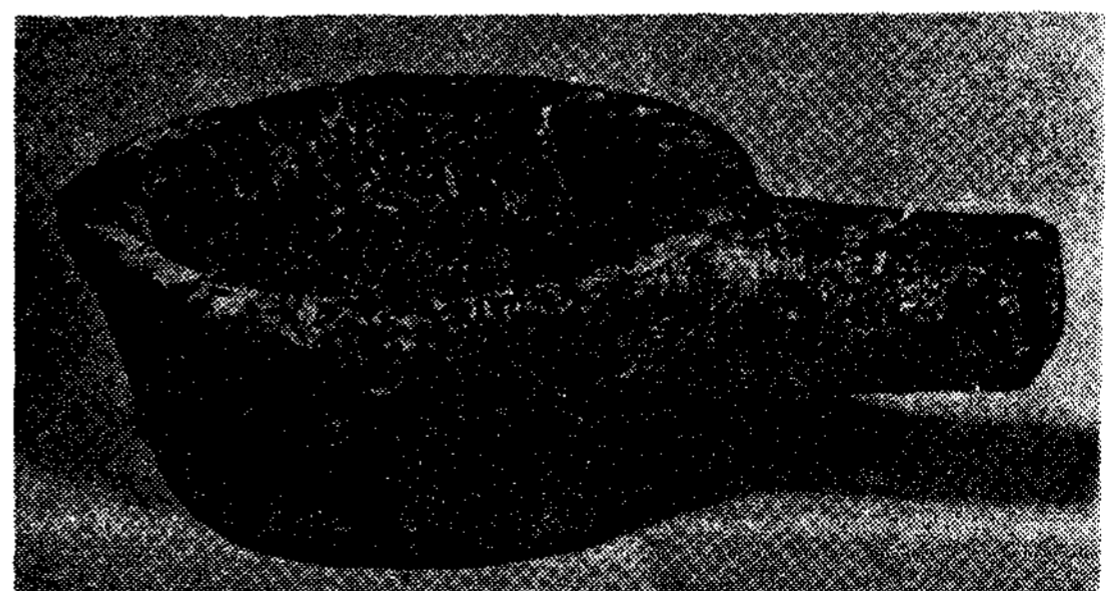


〈圖11〉朝鮮時代 다리미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圖12〉青銅製다리미(H氏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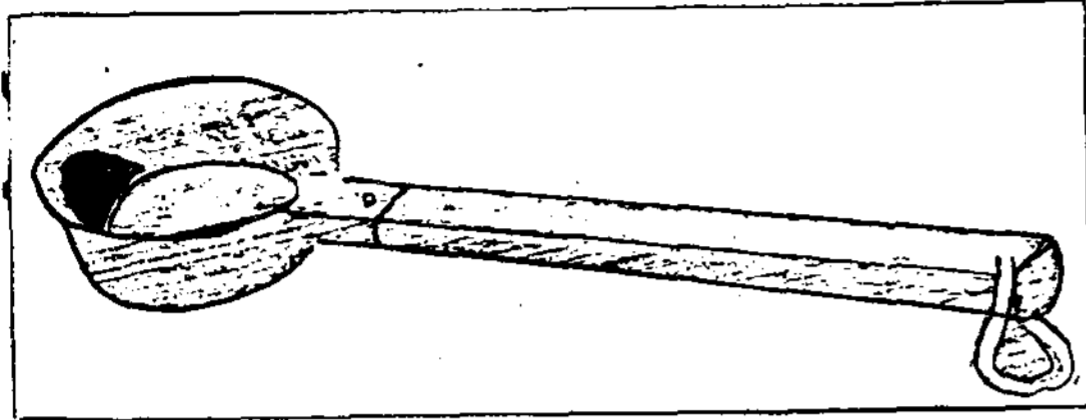
(圖12)는 朝鮮時代의 青銅製다리미로 납작한 圓筒形의 몸체에 전이 좁고 경사가 완만하다. 다리미 몸체의 형태는 3점 모두 비슷하나, 제물자루 형태가 제각기 달라 나무손잡이의 接續방식이 다양하다.



〈圖13〉蠟石다리미(芮庸海氏 소장)

(圖13)은 現在있는 遺物중 유일하게 돌로 만들어진 다리미이다. 19C경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형태는 伽倻의 土製다리미와 유사하다. 전이 좁고

外緣이 도톰하며 운두가 경사졌다. 자루의 斷面은 사각형인데 손잡이를 끼울 수 있도록 둥근구멍이 뚫려있다. 치수는 全長 17.5cm, 外徑 11.7cm, 身高 5.5cm이나 靑銅製다리미에 비해 매우 둔탁하다.



〈圖14〉무쇠다리미(한국민예관 소장)

(圖14)는 全長 73cm, 外徑 18cm, 身高 4.5cm의 무쇠다리미로 전이 없고 운두의 경사가 완만하다. 접시형 다리미 형태로 가는 중간형태라고 생각되며, 특징은 운두의 앞부분에 半月形의 구멍이 있는 것인데, 숯불이 잘피도록 고안한 공기구멍인 것 같다. 사각주형의 나무손잡이가 매우 길다.(55cm)

遺物을 고찰해 본 결과, 朝鮮時代에는 형태에 변화가 있어, 다리미 전이 좁아지다가 전이 없어지고 다음에는 운두가 비스듬히 경사지게 되었다. 다리미 형태에는 3종류가 있는데 ① 전이 넓고 안으로 경사가 크며 운두가 깊고 비스듬히 경사진 것 ② 전이 좁고 경사가 완만하며 몸체가 납작한 圓筒形의 것 ③ 전이 없으며 운두가 둥그스럼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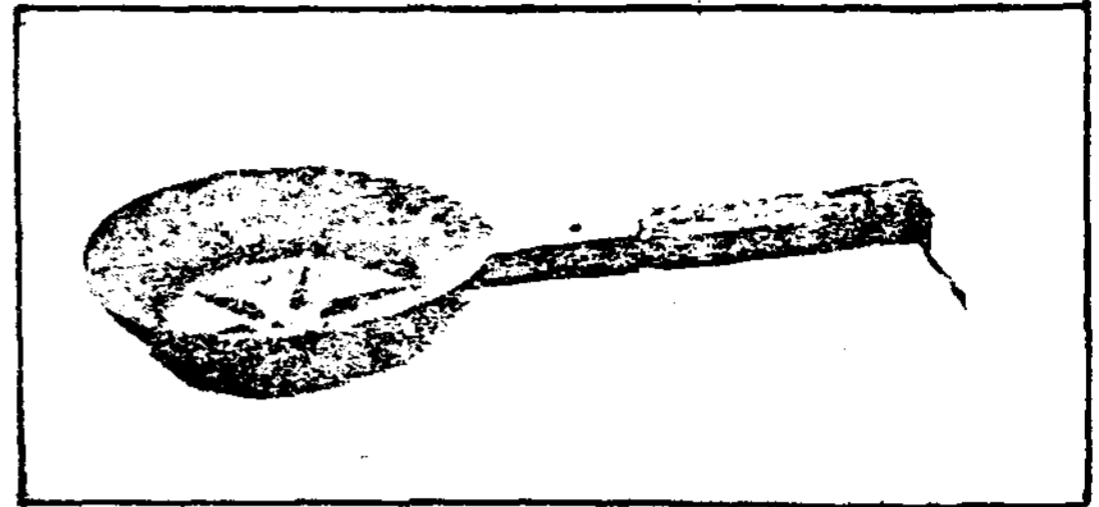
전이 없는 다리미에는 内部의 底面에 中央로부터 6方, 8方 또는 12方으로 뻗어나간 放射形 線紋을 鑄出하는 등 裝飾을 넣은 것도 있었고, 바닥이 두겹으로 된 것, 다리미 앞부분에 공기통을 뚫은 것 등도 있었다.

材料는 靑銅製와 무쇠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돌로 된 遺物도 1점 있었다. 제물자루는 짧아지고 대신 나무손잡이의 길이가 길어졌고, 斷面은 원형, 사각형, 사다리꼴 등이었으며, 나무손잡이 연결방법이 다양했다.

#### 4) 日帝時代의 다리미

日帝時代에는 最近까지도 볼 수 있었던 접시형 다리미와 양복 숯다리미가 함께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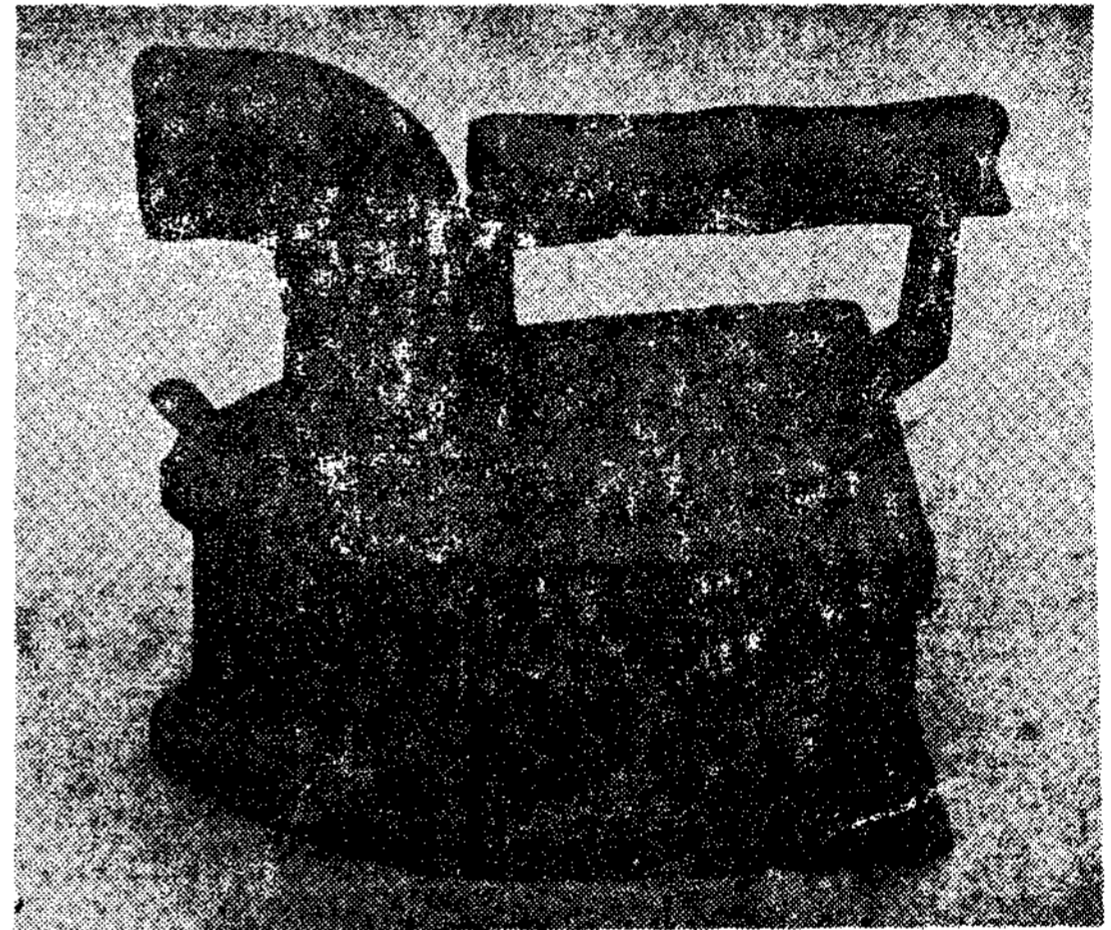
접시형 다리미는(圖15) 朝鮮時代의 전이 없고



〈圖15〉접시형 다리미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소장)

운두가 둥그스럼한 다리미가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이 없고 운두가 경사졌다. 다리미 内部의 底面에는 中央을 향해 6方으로 뻗어나간 放射形의 線紋이 있으며 全長 33.5cm, 外徑 18cm, 內徑 11cm이다.



〈圖16〉양복 숯다리미

(동아원색 세계 대 백과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양복 숯다리미의 형태는 전기다리미와 비슷한데 앞부분에 공기통이 있는것(圖16)과 없는것이 있다. 使用方法은 内部에 숯을 넣고 뚜껑을 덮어 使用하는 경우와 숯불이나 연탄불 위에 다리미 자체를 올려놓아 뜨거워졌을 때 사용하게 만든 다리미가 있다.<sup>8)</sup> 이들 在來式 다리미는 전기 다리미의 보급에 밀려 最近에는 사용치 않고 있다.<sup>9)</sup>

### 3. 다리미의 使用 風俗

예전에는 숯불을 피워 다리미 속에 넣고 그 열로

8) 한국예술사전 II(서울 : 대한민국 예술원, 1985), p. 161

9)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8(서울 : 동아출판사, 1984), p. 155

다리기 때문에 숯불의 온도가 일정치 않고 식게되어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숯불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입으로 불거나 부채질을 해가면서 다려야 했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뜨거울 때는 무명이나 두꺼운 감을, 약할 때는 모시나 명주를 다렸다.

다림질하는 방법은 요즈음 다름질법과는 달리 옷이나 옷감을 바닥에 놓고 다리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이 마주앉아 한사람이 옷감을 맞잡아 올리고 다리미를 든 사람이 한쪽발로 다림질할 옷감을 누르며 손을 움직여 다림질 했다.<sup>10)</sup>

이때 마주잡은 사람이 너무 높이들거나 또는 다림질하는 사람이 부주의 하면 숯불이 떨어져 옷이나 옷감을 망치게 되고, 두 사람의 잡아당기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큰바지를 다릴때 마루폭과 사폭이 길쭉하게 늘어나 모양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또한 다림질할 때는 옷을 먼저 축여서 밟아 다리거나, 빨래후 축축할때 밟아서 다리거나, 혹은 대접이나 주전자에 물을 떠다놓고 입으로 뿜어가면서 다렸는데 이는 아마도 요즈음의 분무기 역할이 될 것이다.



(圖17)다림질(기산풍속화)

(圖17)은 기산풍속화에 나타난 다림질하는 여인 모습인데 옆에 쇠로된 다리미받침, 물대접, 물수건, 부채 등이 놓여 있다.

이러한 다림질은 「靑莊館全書」에 ‘작은 누이는 붉은치마를 다린다’라고 있고, 속담에 ‘다림질 덕이

아니면 서방님 눈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 말해주듯 특히 겹옷의 구김살을 펴주기 위해 수시로 행해졌는데 옷의 맵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가령 같은 모시나 삼베라도 여름에 입을 때는 다림질을 하여 옷을 뽀뽀하게 세워입고 봄에 입을 때는 다듬이질을 하여 다듬이살을 올려입는 것이 우리의 衣生活 風俗이었다.<sup>11)</sup>

朝鮮時代 庶民들 사이에서 流行하던 수수께끼 중에 ‘검은황소가 하얀알을 품고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리미’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다림질 使用 風俗에서 나온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閩閩叢書」에 보면 ‘풀숨을 옷에 들 적에 들어서 서로 당기어 고르게 펴두라. 다리미에 불을 너무 싸게 말고 조금 담아 눌러야 잠이 자서 반반하여 진다.’<sup>12)</sup>라고 있어 다림질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다림질과 관련된 禁忌語를 발췌해 보면 ‘베를 매미날개처럼 곱게 다리는 것은 사치를 위함이 아니라 공력을 들이는 것이다.’<sup>13)</sup>는 다림질할 때 실수하여 태우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뜻이고 ‘다림질할 때 옷고름부터 다리면 빌어 먹는다.’는 ‘옷을 다릴 때 먼저 다려야 할 곳과 나중에 다려야 할 곳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다리미질이란 것이 숯불을 다리미 속에 담아 그 열로 다리는 것이었던 만큼, 다리미 불을 입으로 불면 해롭다 하여 숯재가 날리는 것을 防止하는 禁忌語도 있다.

또한 ‘다리미 불에 담뱃불을 붙이면 해롭다’ ‘다리미 불을 쬐면 재수 없다.’고 하여 다리미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火災를 防止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이러한 禁忌語들의 風俗的 意義를 살펴보면, 다리미질에 반드시 주의를 집중시켜 정성을 들이게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나아가서 여성들의 勤勉, 清潔, 實用性을 권장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림질 道具들은 쇠(鐵)로 되어 있는 만큼 녹이나기 쉬웠으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해 생솔이나 솔갑 위에 놓아두는 때가 많았으며,<sup>14)</sup> 나무 손잡이

1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九冊, 京畿道篇, p. 253

11) 李能和, 朝鮮女俗考, 第22章, 朝鮮女子勞力働作, 八, 婦女褳衣, p. 130.

12) 憑虛閣全書, 第一章 卷之二 ‘바느질과 길쌈’

13) 李德懋, 「靑莊館全書」, 第四十八卷 耳目口心書, 國譯Ⅷ, 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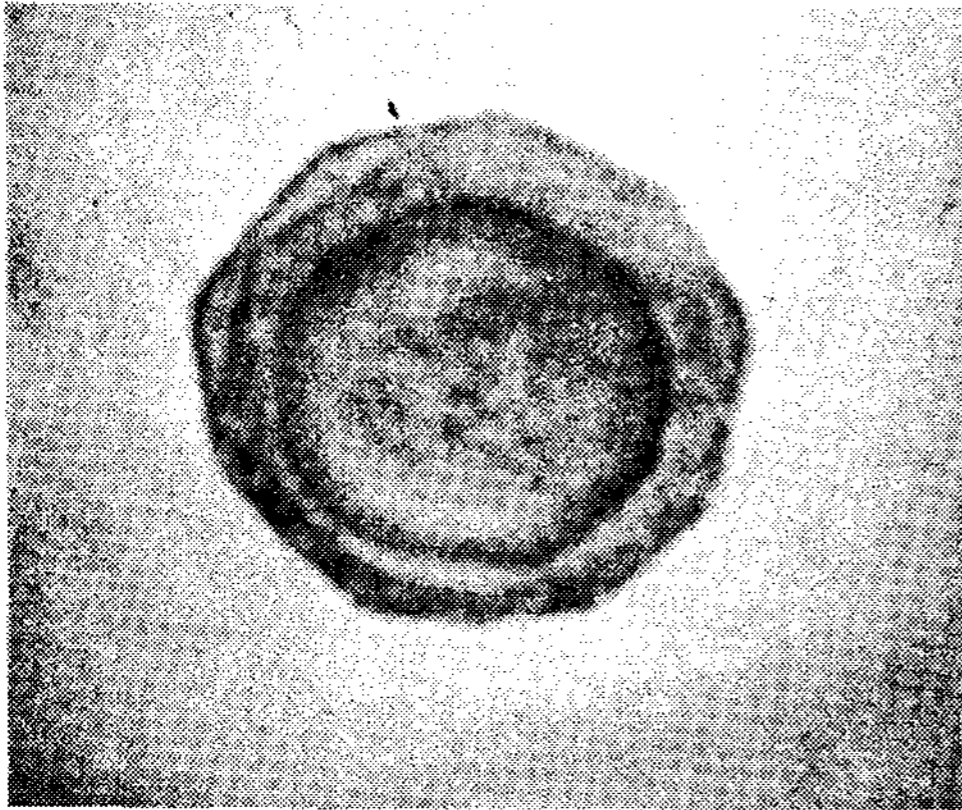
14)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四冊, 慶北篇, p. 471



끝에 쇠고리가 달려 있는 것은 사용후 벽에 걸어 보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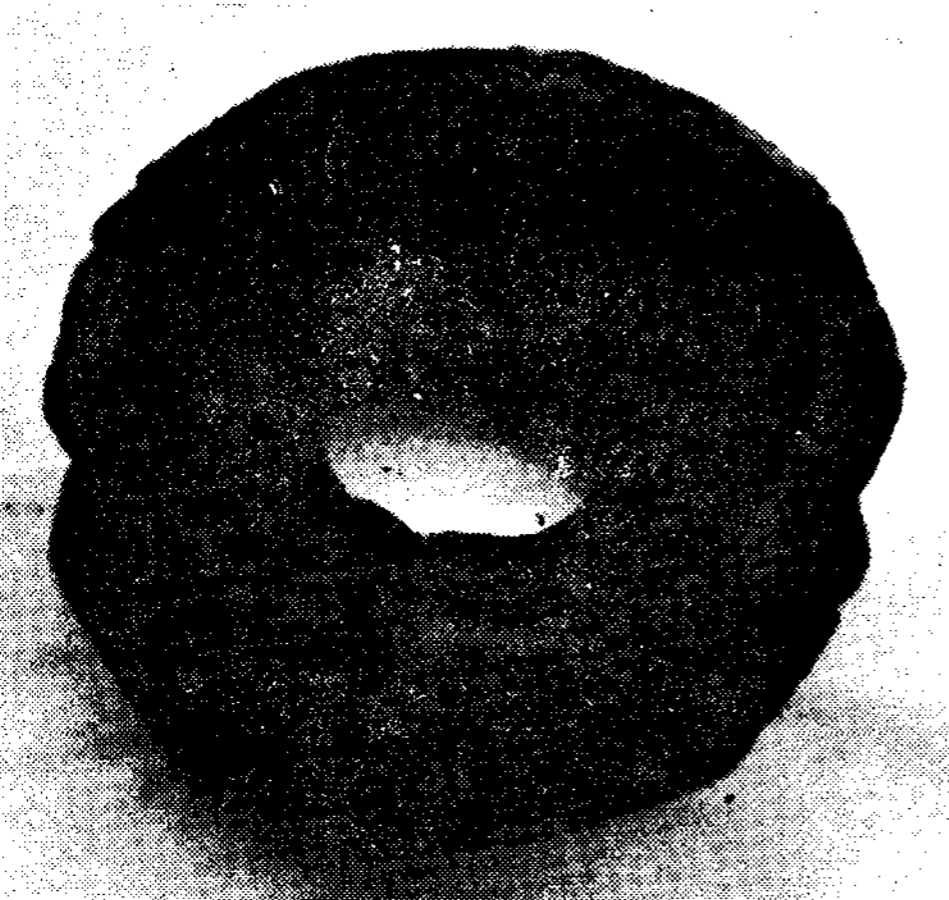
#### 4. 다리미 받침

다리미는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받침을 필요로 했다. 材料는 鐵製·돌·토기 등이 사용되었으며 형태는 다양했는데, 다리미 모양이 원형인 만큼 받침의 형태도 대부분 원형이었다.



〈圖18〉다리미 받침  
(온양 민속 박물관 소장)

(圖18)은 곱돌로 된 다리미 받침인데 가장자리는 8각으로 재털이 모양이며 外徑 16cm, 內徑 13.5cm, 높이 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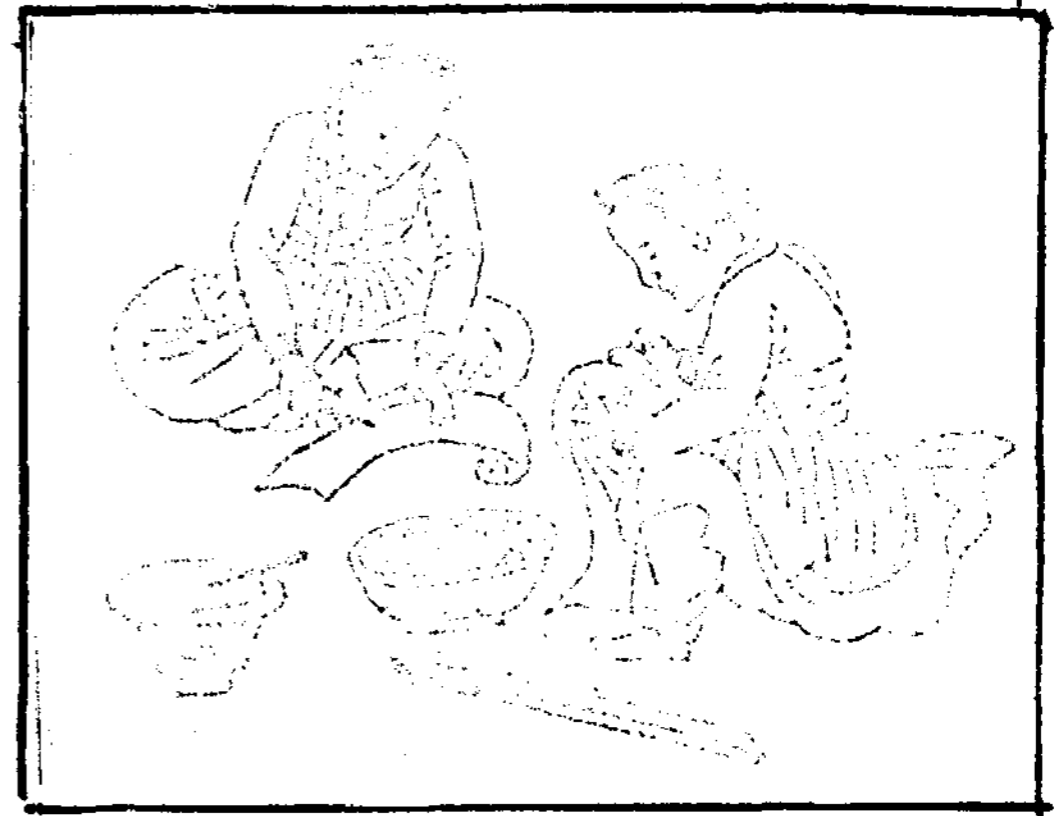
〈圖19〉다리미 받침  
(국립 민속 박물관 소장)

(圖19)는 토기로 된 다리미 받침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다. 外徑 17cm, 內徑 6.5cm, 높이 10cm이다.

### Ⅲ 1. 인두의 定義와 形態

인두는 아도(研刀)라고도 하며 바느질할 선을 꺾어 눌러줌으로써 손쉽게 바느질하도록 도와주던 도구로 오늘날의 초크 역할을 한 셈이다.

또한 바느질 중간 중간에 슬기·깃·동정 등을 눌러 다리는데는 밀이 편편하고 넓은 다리미로는 불편했으므로 모양이 작고 뾰족한 인두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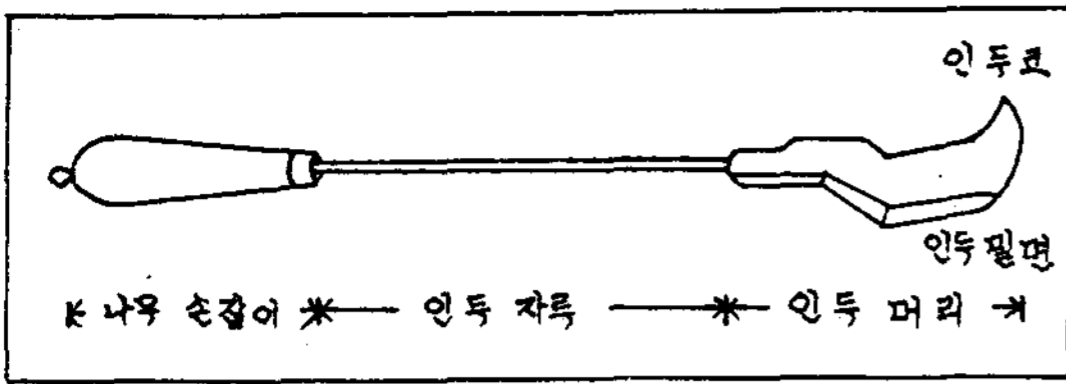
〈圖20〉바느질(기산풍속화)



〈圖21〉바느질 하는 女人  
(韓國民俗館 소장)

바느질할 때 화로에 인두를 묻어(圖20, 21) 전도된 열로 인두질을 하여 모서리처리와 배래·도련 등의 곡선처리를 하였다. 이밖에도 갓을 만들 때 바느질에 쓰이는 유사한 인두를 썼다고 한다.<sup>15)</sup>

15) 박정식(1980), "우리나라 바느질 용구 소고" 세종大 석청, p. 50



〈圖22〉인두의 형태

인두의 형태는 인두머리, 인두자루, 나무손잡이 세부분으로 되어있는데(圖22) 인두머리의 뾰족한 끝부분을 인두코라 하고 다리는 부분을 인두밀면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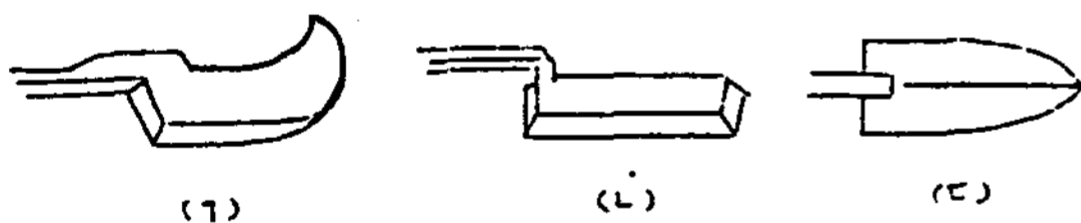
2. 인두의 變遷

인두의 發生年代는 다리미보다 늦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리미와 같은 금속제품 임에도 불구하고 三國時代의 遺物은 없다.

인두는 衣服의 細部를 손질하는 것인 만큼 다리미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後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인두의 遺物은 국립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에 소장된 총 45점을 실측하였다.(表3 참조)

유물을 고찰한 결과 朝鮮時代의 인두는 머리의 형태에 따라 대략 세종류로 구분된다.(圖23)



〈圖23〉인두의 3가지 形態

- 即 ㉠ 코끝이 뾰족하게 올라간 것
- ㉡ 方形인 것
- ㉢ 流線形인 것 등이다.

1) 코끝이 뾰족하게 올라간 인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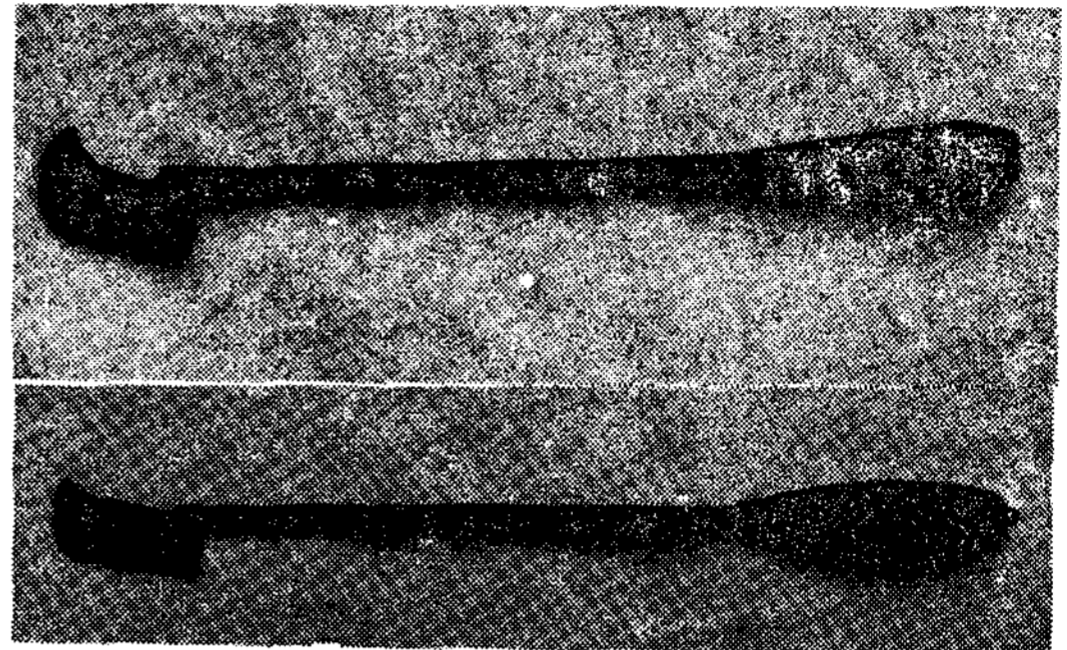
유물은 18점 실측하였는데 끝이 뾰족하게 올라간 인두는 다른 형태의 것들 보다 먼저 사용되어진 것으로, 인두의 밀면은 폭이 0.8~1.5cm로 좁고 앞쪽으로 점점 좁아지는 긴 이등변삼각형이다.

인두머리 크기는 높이와 길이에 高低長短이 있어 높이가 6(高)~2(低)cm, 길이가 8(長)~4.5(短)cm이다.

머리가 低短한 인두는 저고리의 당코깃 섯코,

깃궁둥이, 버선코 등 精巧한 細部에 適當하였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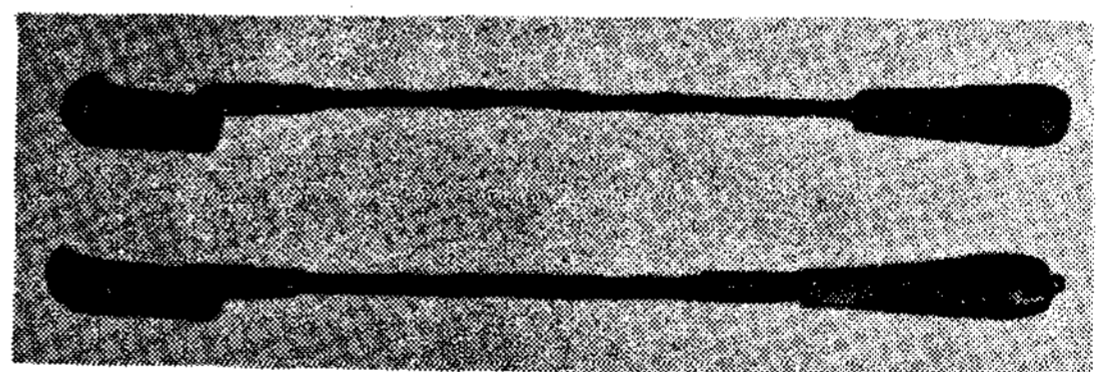
코끝의 尖度와 인두 앞턱의 屈曲에 強弱이 있었다.(圖 24 上下)



〈圖 24〉코끝이 뾰족하게 올라간 인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圖 24-上)은 全長 44cm, 인두머리 長 7.5cm, 높이 2.5~4cm, 厚 1.5cm로 된 무쇠인두로 인두코가 매우 뾰족하며 인두앞턱의 굴곡이 크다. 인두머리의 높이와 길이가 高長에 속한다.

(圖 24-下)는 全長 33cm, 인두머리 長 5cm, 높이 1.6~2.5cm, 厚 0.8cm의 무쇠인두로 인두코의 尖度와 앞턱의 屈曲이 上의 인두에 비해 다소 弱하다. 인두머리의 크기는 低短에 속한다. 자루에는 장식이 없으나 손잡이에 螺鈿黑漆을 하여 梅·竹紋이 象嵌되어 있다.



〈圖 25, 上下〉끝이 뾰족한 인두 (온양 민속 박물관 소장)

(圖 25-上)은 全長 46.3cm, 인두머리 長 7.2cm, 높이 3~5cm, 厚 1cm로 된 무쇠인두로 인두머리의 크기는 高長에 속한다. 인두자루의 마디 마디에는 竹紋이 있으며 손잡이 接結부분은 4cm 가량이 木쇠로 締워져 있는데 節紋이 彫刻되어 있다.(圖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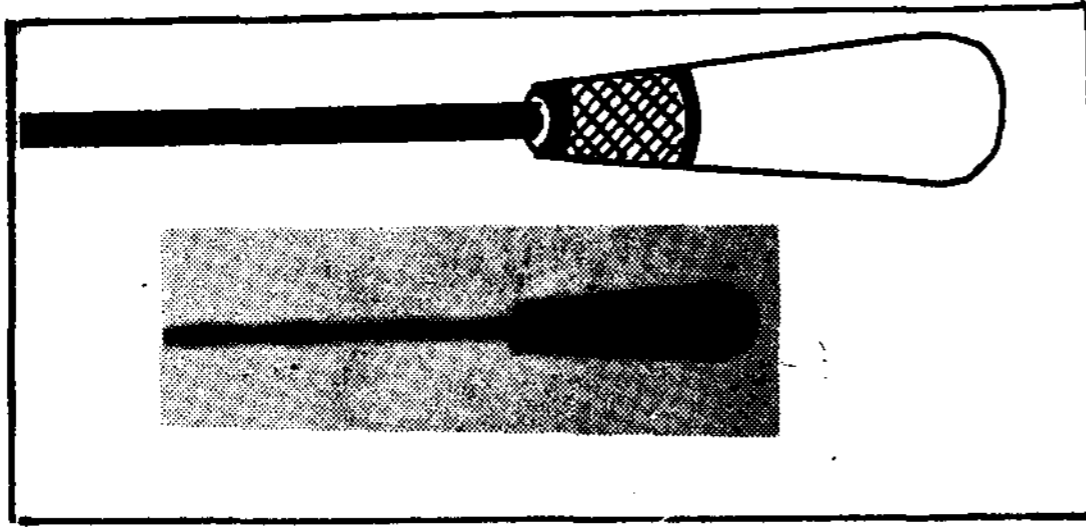
16) 홍성덕(1973), "우리나라 바느질 도구 소구", 梨大석청, p. 63

〈表 3〉

## 인두 (45점)

(단위 : cm)

|    | 所 藏        | 全 長  | 인두<br>머리長 | 材 料 | 時 代  | 特 徵                |
|----|------------|------|-----------|-----|------|--------------------|
| 1  | 국립민속박물관    | 33   | 5         | 鐵   | 조선말기 | 손잡이에 螺鈿黑漆          |
| 2  | "          | 43.5 | 7.5       | "   | "    | 손잡이 初入에 節紋. 鬚쇠     |
| 3  | 온양민속박물관    | 46.2 | 7         | "   | 조선중기 | 손잡이 初入에 鬚쇠 (2.4cm) |
| 4  | "          | 46.2 | 7.2       | "   | "    | 인두자루 竹紋            |
| 5  | "          | 45.4 | 7         | "   | "    |                    |
| 6  | "          | 43   | 7         | "   | "    | 인두자루 竹紋            |
| 7  | "          | 32.5 | 7.5       | "   | 조선말기 | 流線形                |
| 8  | "          | 28   | 6.2       | "   | "    | "                  |
| 9  | "          | 21   | 5.5       | "   | "    | 밑면 0.6cm 아주 작은 인두  |
| 10 | "          | 36   | 8         | "   | "    | 方形인두 (두께 0.2cm)    |
| 11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34   | 10        | "   | "    | 流線形                |
| 12 | 고려대박물관     | 52   | 7.2       | "   | "    | 줄머리인두              |
| 13 | "          | 39.5 | 7         | "   | "    | 인두자루 초입에 2.5cm 鬚쇠  |
| 14 | "          | 36   | 5.8       | "   | "    |                    |
| 15 | "          | 32   | 7.2       | "   | "    |                    |
| 16 | "          | 29.8 | 6.3       | "   | "    |                    |
| 17 | "          | 23   | 6.0       | "   | "    |                    |
| 18 | "          | 29   | 6.5       | "   | "    |                    |
| 19 | "          | 32   | 7.5       | "   | "    |                    |
| 20 | "          | 20.5 | 7         | "   | "    |                    |
| 21 | 관동대 박물관    | 25.2 | 6         | "   | 조선중기 | 바닥너비 1             |
| 22 | "          | 28   | 6.5       | "   | "    | 바닥너비 0.9           |
| 23 | "          | 37   | 5.9       | "   | "    | 바닥너비 1             |
| 24 | "          | 30.5 | 7.5       | "   | 조선말기 | 流線形                |
| 25 | "          | 36.5 | 8.6       | "   | "    | 流線形                |
| 26 | 경희대 박물관    | 35   | 10.6      | "   | "    | 流線形, 方形인두와 비슷      |
| 27 | 덕성여대 박물관   | 37   | 5.8       | "   | "    |                    |
| 28 | "          | 37.2 | 6.0       | "   | 조선중기 |                    |
| 29 | "          | 39   | 6.2       | "   | "    |                    |
| 30 | "          | 43   | 6.5       | "   | "    |                    |
| 31 | "          | 36   | 5.8       | "   | 조선말기 |                    |
| 32 | "          | 28   | 5.6       | "   | "    |                    |
| 33 | "          | 32   | 6.2       | "   | "    |                    |
| 34 | 성신여대 박물관   | 43.5 | 7.2       | "   | "    | 流線形                |
| 35 | "          | 35   | 5.7       | "   | "    | 鬚쇠. 양끝에 花頭         |
| 36 | "          | 44   | 8.5       | "   | "    | 鬚쇠(손잡이 끝)          |
| 37 | "          | 42   | 6.5       | "   | "    |                    |
| 38 | 숙명여대 박물관   | 34.4 | 8.1       | "   | "    |                    |
| 39 | "          | 33   | 10        | "   | "    |                    |
| 40 | "          | 49.8 | 6.7       | "   | "    |                    |
| 41 | "          | 37.1 | 7.2       | "   | "    | 인두자루에 조각           |
| 42 | 이희여대 박물관   | 34.5 | 6.0       | "   | "    | 方形인두               |
| 43 | "          | 43.7 | 7.5       | "   | "    |                    |
| 44 | 七寶堂        | 31   | 8.5       | "   | "    |                    |
| 45 | "          | 35   | 7.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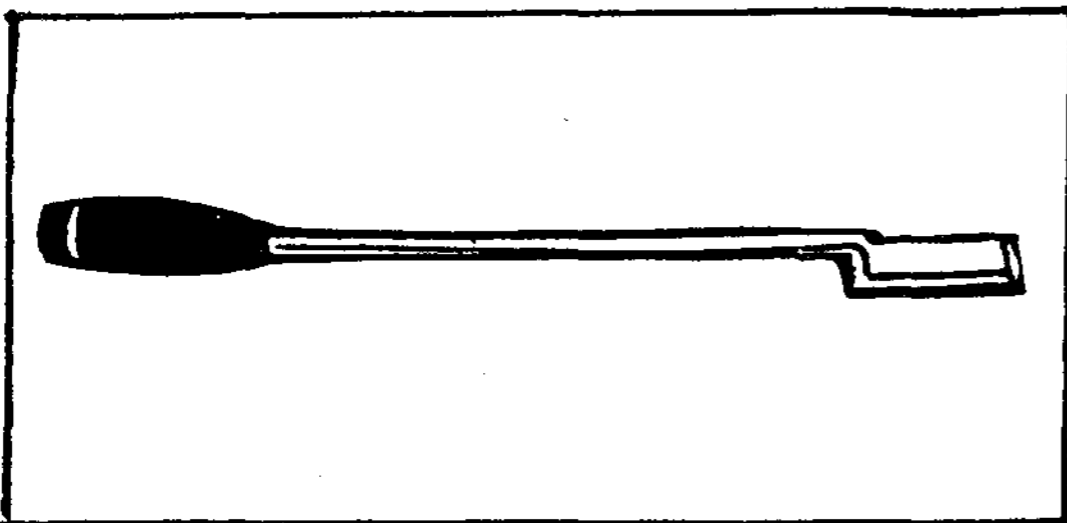
〈圖 26〉인두 손잡이의 節紋

(圖 25-下) 全長 46.2cm, 인두머리長 8.4cm, 높이 4~6cm, 厚 1cm로 된 무쇠인두로 인두코의 尖度와 앞턱의 屈曲이 弱하다. 손잡이 接結部에 2.4cm 정도의 窩쇠를 錫었다.

2) 方形 인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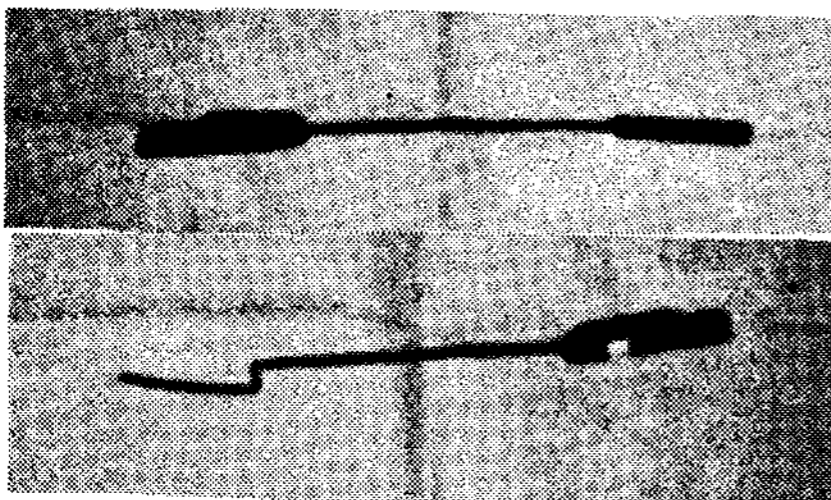
遺物은 2점 실측하였다. 方形인두는 그 형태로 보아 코끝이 뾰족한 形이 流線形으로 옮겨가는 中間 형태로 보이며 實物도 많지 않다.

梨大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方形인두는(圖 27) 밀면 길이 6cm, 너비 1.8cm의 長方形으로 편편하며 윗면은 이보다 약간 좁아지게 되었다.



〈圖 27〉方形인두(梨大박물관소장)

자루에는 장식이 없고 10cm 길이의 나무손잡이가 달려있으며 全長은 34.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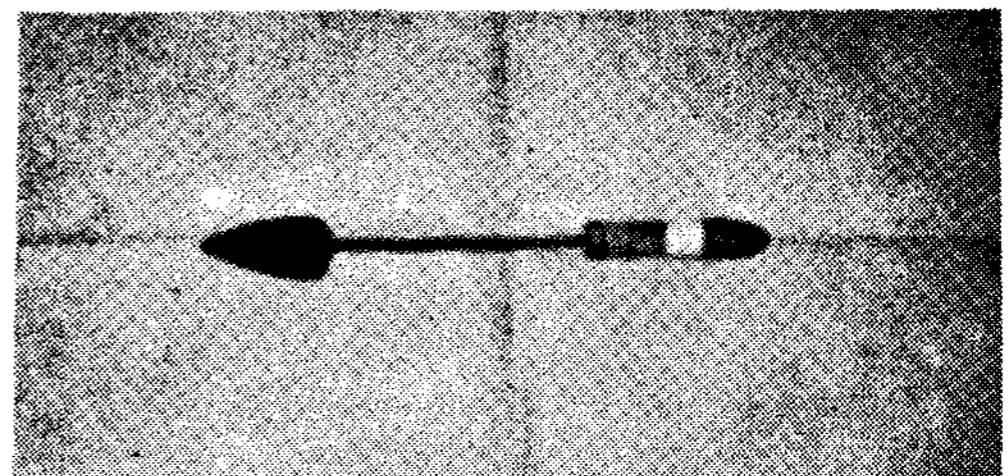
〈圖 28〉方形인두  
(온양민속박물관소장)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遺物은(圖 28) 밀면의 길이 8cm, 너비 1.2cm로 편편하며 厚 0.2cm로 매우 얇고, 윗면과 密면의 크기가 같다. 자루에는 장식이 없고 10cm 길이의 나무손잡이가 달려있으며 全長은 3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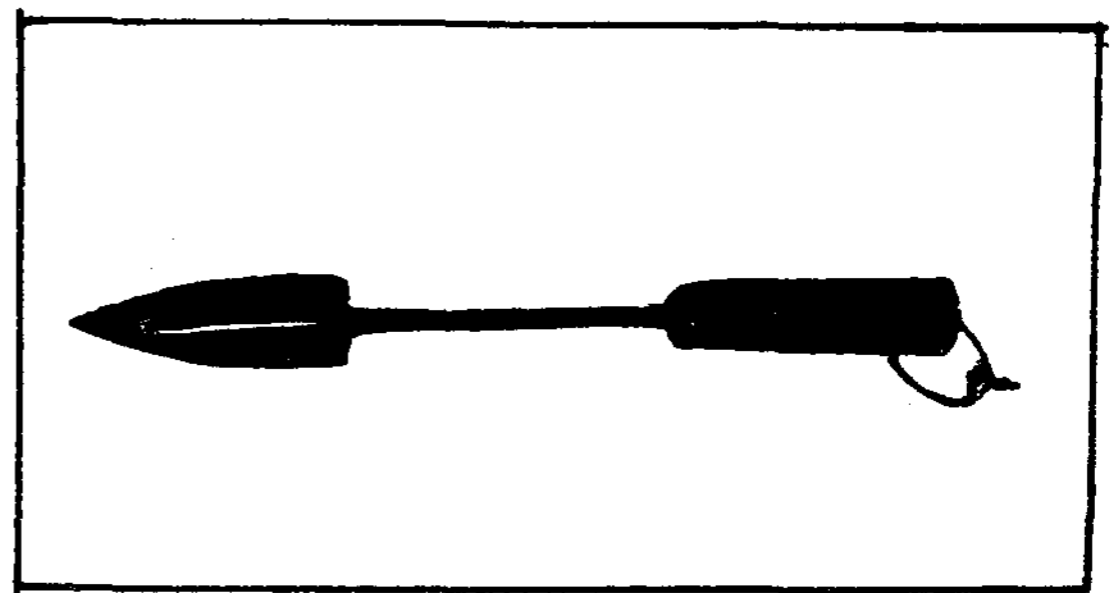
3) 流線形 인두

유물은 20점을 실측하였다. 流線形 인두는 가장 後代의 것으로 朝鮮末期부터 사용되었으며 現今의 전기인두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 인두의 특징은(圖 29) 인두밀면이 流線形으로 편편하며 옆면은 비스듬히 경사가 있고 윗면에는 길이로 稜線이 있다. 크기는 全長 32.5cm로 方形인두와 비슷하나 인두머리의 크기는 길이 7.5cm, 너비 4cm로 方形인두머리보다 크다. 자루에는 장식이 없고 10.5cm의 나무손잡이가 달려있다.



〈圖 29〉流線形인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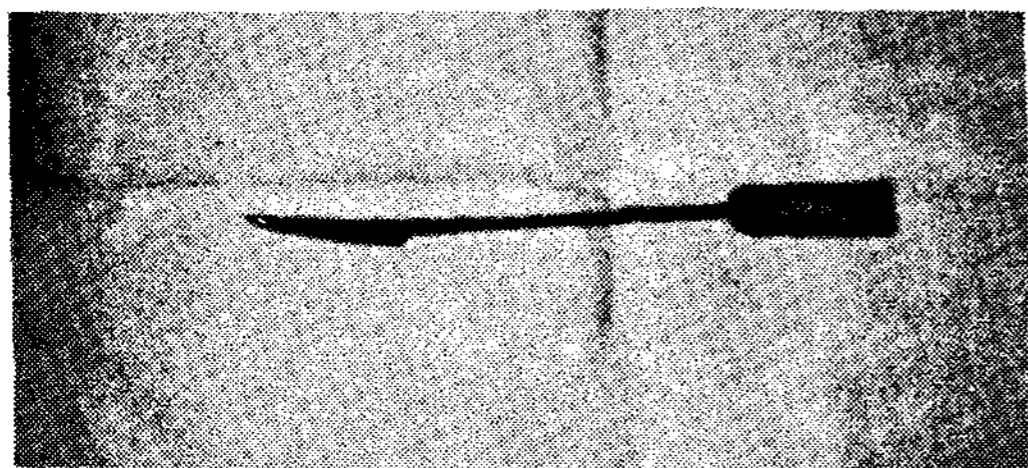


〈圖 30〉流線形 인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圖 30)의 流線形인두는 全長 34cm, 인두머리長 10cm, 너비 3cm로 인두머리가 大편이며 모양새가 매우 세련되어 있다.<sup>17)</sup>

1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제17집(의생활편) 문화공보부, 1986, p. 203





〈圖 31〉流線形 인두  
(은양민속박물관 소장)

(圖 31)은 流線形인두이나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좁아 날카로운 형태이며, 인두자루에는 마디가 있다. 全長 38cm, 인두머리長 9cm, 너비 1.2cm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朝鮮時代의 인두는 모두 무쇠로 만들었으며 인두머리에서 연결된 제물자루가 달리고 그 끝에는 열전도가 안되는 나무로 손잡이를 대었다.

中·後期の 인두머리는 원래 코끝이 뾰족하고 밀면이 좁았으나 朝鮮王朝末에 점차 코끝이 둔화되고 인두 밀면이 넓어지다가 인두머리 전체가 流線形으로 납작하게 變形되었다. 이는 당시의 저고리깃이나 설 등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인두머리의 형태에 따라 時代別로 대략 3가지 분류를 할 수 있었으나, 地域的인 차이점은 없었다.

인두자루는 꼬아진것, 마디마디에 竹紋을 넣은 것 등이 있다.(圖 24-上)

나무손잡이에는 木理가 뚜렷한 木材를 써서 自然木材의 質感을 나타냈고, 또 자귀자국을 내어 거칠게 만들어 木材自體의 素朴한 美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약간의 技巧를 加한다면 나무에 기름을 올려 木材를 보호하고 윤이나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혹 사치를 숭상하는 반가에서는 竹·節紋 등을 彫刻하거나 螺鈿漆을 하였다.(圖 24-下) 인두자루와 손잡이의 接結部에는 못쇠를 錐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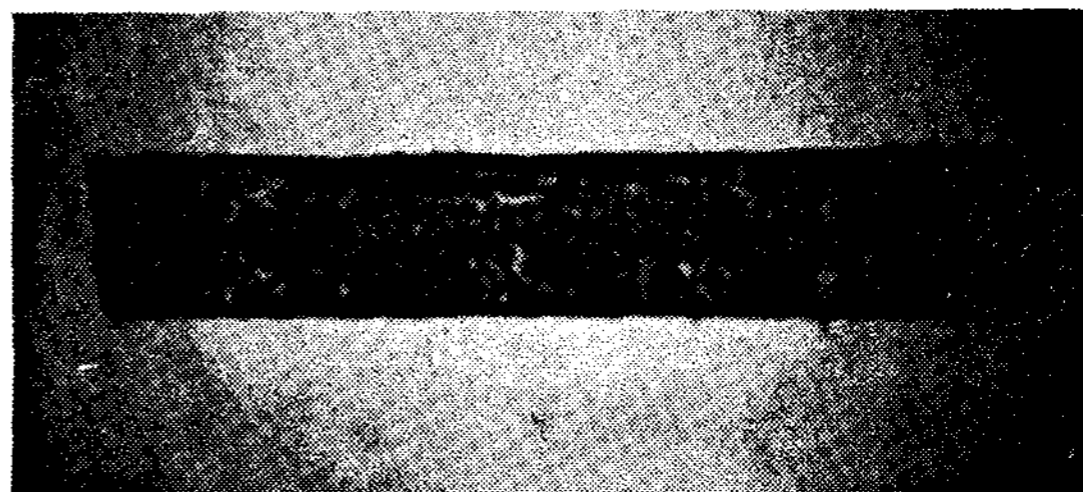
### 3. 인두판

인두판은 인두질할 때 받침대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솔기를 격을 때, 풀칠을 할 때, 양무를 위에 걸쳐놓고 使用하는 것이다.

인두질 할때는 옷감을 인두판 위에 놓고 두개의 인두를 화롯불에 달구어 교대로 使用하는 것이 朝鮮의 風俗이었다. 인두판은 인두와 같이 發生했

다고 볼 수 있다.

인두판을 만들 때는 長方形木板 上下에 솜을 도톰하게 펴고 옥양목이나 비단 형질을 씌워서 만들었는데 형질은 자주 빨아서 使用해야 했으므로 특별한 장식은 하지 않았으나 혼인할 때는 이위에 수를 놓기도 하였다. 使用후에는 인두판집을 만들어 넣어두기도 하였다.



〈圖 32〉인두판(은양민속박물관 소장)

(圖 32)의 인두판은 길이 67cm, 너비 12cm, 두께 1.8cm의 長方形으로 남색비단에 수를 놓았다.

## IV. 結 言

다리미는 實生活에서 직접 使用했던 것으로 三國時代에서 日帝時代까지 形態의 變化가 거의 없었고 다만 使用하기에 편리하도록 약간의 發展이 있었다. 또한 地域에 따른 차이점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다리미 중 제일 오래된 遺物은 百濟 무령왕비가 使用하던 靑銅製 다리미이다.

高麗時代 다리미 2점은 靑銅製와 白銅製이고 形態는 新羅·伽倻의 다리미와 비슷하여 三國時代에서 高麗時代에 이르는 동안 變化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朝鮮時代에는 形態에 變化가 있었는데, 다리미 전이 좁아지다가 전이 없어지고 다음에는 운두가 비스듬히 경사졌다.

日帝時代에는 접시형 다리미와 양복 솥다리미를 함께 使用하였다.

한편 인두에 대한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의 遺物과 文獻은 없으며 다리미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 後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의 인두는 3종류인데 코끝이 뾰족한 인두가 가장 時代가 빠른것으로 저고리의 당코깃이 나타나고 설코 등의 예리한 선이 강조되던 中·後期の 것으로 생각된다.

方形인두는 코끝이 뾰족한 인두가 流線形으로  
움아가는 중간형태로, 혹은 특별한 용도에 使用되  
던 인두로 짐작된다.

流線形 인두는 코끝이 둔화되고 밑면이 납작하게  
變形된 가장 後期の 것이다. 인두도 다리미와 마찬가지로 形態에 따라 時代別로는 대략 區分이 되나  
地域的인 차이는 없었다.

參 考 文 獻

「故事成語辭典」, 서울:學園社, 1961.  
 「國立晉州博物館圖錄」, 서울:通川文化社, 1984.  
 「東亞原色世界大百科辭典」, 서울:東亞出版社, 1984.  
 「梨大博物館圖錄」“옛 여인의 향기”, 서울:梨大出版部, 1972.  
 「溫陽博物館圖錄」, 서울:계몽사, 1979.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서울:문화공보부, 1986.  
 「韓國民族大百科辭典」, 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韓國예술사전Ⅱ」, 서울:대한민국예술원, 1985.  
 「韓國의 美 ② 古墳美術」, 서울:乙酉文化社, 1985.

金基雄, 「百濟의 古墳」, 東京:學生社, 1976.  
 「新羅의 古墳」, 東京:學生社, 1976.  
 「伽倻의 古墳」, 東京:學生社, 1978.  
 金萬熙, 「韓國民俗圖錄」, 서울:尙美社, 1977.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1881.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寶晉齋, 1978.  
 孫晉泰, 「韓國民族史概論」, 서울:乙酉文化社, 194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年紀未詳  
 李肯翊, 「燃藜室記述」, 正祖年間, 1800年경.  
 李德懋, 「青莊館全書」, 正祖十九年, 1795.  
 李能和, 「朝鮮女俗考」, 京城:東洋書院, 昭和二年  
 全完吉, 「사리랑: 한국여인의 생활미학」, 서울:言語文化  
 史, 1980.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一志社, 1985.  
 崔常壽, 「韓國의 衣食住와 民具의 研究」, 서울:成文閣,  
 1988.  
 「仕女畫의 美」, 大만:國立古宮博物院, 1985.  
 박정식, “우리나라 바느질 용구 소고”, 碩士學位論文,  
 世宗大大學院, 1980.  
 홍성덕, “우리나라 바느질 도구 소고”, 碩士學位論文,  
 梨大大學院, 1973.